잠복 기리시탄(潜伏キリシタン)의 전승 세례
-기리시탄 교리(教理)와의 적합성 여부를 중심으로-

김병락*
kimbl4777@hanmail.net
안병곤**
bgan5319@hanmail.net

<目次>

1. 머리말
2. 세례 집례자(執禮者)의 자격은 적합한가
3. 수세자(受洗者)의 자격은 적합한가
4. 세례 집례자의 세례 의식(儀式)은 적합한가
5. 마무리

主題語: 데우스(Deus), 기리시탄(Christão), 세례(bautismo), 오라쇼(oratio), 콘프라리아(confraria)

1.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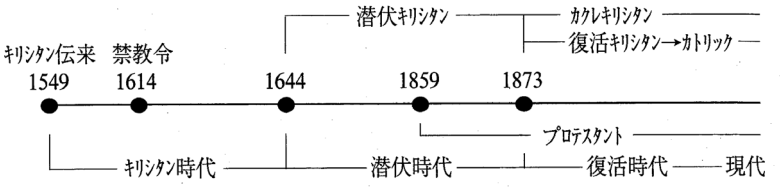
일본에 그리스도교가 전래되어 65년이 지난 1614년 '선교사 추방령(伴天連追放令)'이 내려지면서 전국적인 기리시탄(キリシタン, 그리스도교) 금제기에 들어서게 되고,[1] 잠복 사목 활동을 하던 최후의 사제 고니시 만쇼(小西マンショ)가 1644년 순교 당하여 교계제도는 무너지게 된다.(<그림 1> 참조) 이후 한층 거세진 막부의 탄압과 개종 정책에 내몰리던 잠복(潜伏) 기리시탄(그리스도인)[2]들이었지만 "세례는 내세(來世)에 구원받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길"이라는 교리서의 가르침에 따라 사제가 없는 상황에서 그들 중에 지도자를 세워 세례를 전승하여 왔다. 1873년(明治6年) 해금(解禁) 직전 재 포교를 위해 착임한 파리외방선교회 소속

* 경상대학교 대학원 일본학과 박사과정
** 경상대학교 대학원 일본학과 교수

1) 기리시탄(Christão)은 1549년 그리스도교 전래에서 해금된 1873년까지 일본 그리스도교나 그리스도인을 일컫는 용어이다. 신국사상(神国思想)의 기초 위에 허다한 신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일본과 정면충돌하게 되고, 게다가 집권체제를 위협할 잠재적 세력으로 지목받은 일신교(一神教) 기리시탄은 1587년(天正15年)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선교사 추방령을 시작으로 내몰리기 시작한다. 「伴天連(バテレン)」은 당시 padre(パードレ, 神父)의 음역이다.

2) 불교나 신도의 신자로 위장·잠복하여 비밀 신자 조직 속에서 폐쇄적으로 신앙을 이어가는 자

사교 프티잔(Bernard-Thadée Petitjean, 1829–1884)은 이들의 전승 세례 중 일부는 세례문이나 의식(儀式)에서도 기리시탄시대와 거의 같음을 확인한 바 있다.



<그림 1> 기리시탄 약사(略史)(宮崎賢太郎 2008:19)

잠복 기리시탄은 도호쿠지역(東北地方, 本州 동북부에 위치한 青森·秋田·山形·岩手·宮城·福島 등 6현의 총칭)이나 호쿠리쿠지역(北陸地方, 日本海에 면한 福井·石川·富山·新潟 등 여러 현의 총칭)에서 서규슈지방(西九州地方, 五島·生月·平戸·西彼杵半島)에 이르는 전국 각지에 널리 분포하여 왔다.(清水紘一 1985:232) 그러나 규슈를 제외한 지역의 신자들은 탄압이나 기성 종교와의 습합 등의 영향으로 해금을 맞이하지 못한 채 사라지게 된다.

기리시탄 금제기에는 사제나 교회당도 없을 뿐만 아니라 종교 서적을 소유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된다. 간혹 필사본으로 전승되기도 했지만 금제기 전에 간행된 단편 교리서 몇 종류와 오라쇼[3](기도) 등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고찰에 필요한 사료로는 막부측의 탄압과 관련한 기록이나 검거된 기리시탄으로 부터의 진술 내용, 해금 직전 재입국한 선교사를 통한 잠복 기리시탄에 관한 기록 등에 불과하여 내용면이나 지역적으로 미미하고 제한적이다.

잠복 기리시탄의 세례에 관한 선행 연구는 단행본이나 잡지, 학위 논문으로도 검색되지 않는다. 반면 가쿠레키리시탄(かくれキリシタン/隠れキリシタン/カクレキリシタン, 숨은 그리스도인)[4]의 세례는 신앙 습속에 포함된 형태로 잡지나 단행본 등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세례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3) 예수회는 당시 기도를 뜻하는 용어인 기도(祈り·祈念·祈祷)는 주술적 요소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이교도가 사용하던 용어인 이유로 라틴어를 그대로 사용토록 하는 원어주의를 채택하게 된다.

4) 해금 직후 잠복 기리시탄은 세 유형으로 나뉘게 된다. 그 내용을 보면 교회로 복귀한 자(復活キリシタン), 불교나 신도의 신자가 된 자(개종자), 가쿠레키리시탄으로 남은 자 등이다. 가쿠레키리시탄은 해금으로 인해 종교의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래 당시의 가톨릭교회로 복귀하는 것을 또 하나의 개종으로 여기며 여전히 잠복 기리시탄의 신앙을 이어가는 자이다.

(마태복음 28:19-20)[5]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 실린 성서(共同飜譯)에 근거하고 있다. 기리시탄시대에 간행된 교리서『도치리나 기리시탄(どちりなきりしたん)』(1600년)(이하『도치리나』로 표기)은 세례를 가리켜 데우스(하느님/하나님)가 주시는 은총인 칠성사 중의 첫 번째 단계요, 이 단계 없이 다른 성사를 받을 수 없다고 한다. 또한 세례는 기리시탄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것으로 기리시탄이 되는 성사이며, 이를 통하여 신앙과 은총을 받으며 원죄와 그때까지 지은 죄를 용서받는다고 말한다. 다만 적합한 방법으로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사제 부재로 대표되는 잠복시대의 세례가 그 이전 기리시탄시대의 교리서에 적합하게 적용되었는가의 여부에 관한 고찰이다. 다만 '적합한 세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여기서는『도치리나』의 세례편에 나오는 다음 세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즉 세례를 베푸는 자인 집례자(執禮者)의 자격, 세례를 받는 수세자(受洗者)의 자격, 세례 집례자의 세례 의식(儀式) 행위 등이 교리에 적합한가 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세례가 단순히 그들의 습속에 지나지 않는지, 아니면 그 속에 기리시탄 신앙을 내포하고 있는지도 짚어 보고자 한다.

사료에 있어서는 타 지역보다 비교적 다수이면서 연구도 활발한 규슈 지역의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 지역은 그리스도교 최초 전래지이면서 비교적 오랜 기간 선교사의 지도를 받아 신앙의 뿌리가 가장 깊은 곳이며, 지금도 가쿠레키리시탄이 극소수 산재하고 있다. 잠복 기리시탄의 후손인 이들을 연구함으로써 잠복 기리시탄과 관련한 부족한 사료를 어느 정도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세례 집례자(執禮者)의 자격은 적합한가

2.1 기리시탄시대의 세례 집례자

잠복시대는 기리시탄시대를 계승한 것이므로, 우선 기리시탄시대의 세례 집례자를 고찰하고 난 다음 잠복시대의 세례 집례자를 다루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한다. 교리서『도치리나』는 누가 세례를 베풀도록 하고 있는지 찾아보고자 한다.

5) C3TV온라인성경 http://bible.c3tv.com/bible/read/read.asp?MenuCd=2(검색일 2014.6.20)

본래 세례를 베푸는 것은 사제의 역할이다. 그러나 이 성사(聖事)는 내세에 구원받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길이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제가 없는 곳에서는 남녀 불문하고 이 성사 베푸는 것을 허락하므로 누구라도 베풀 수 있다.…사제가 없는 곳이라도 이 세례는 자주 필요한 것이므로, 기리시탄은 누구라도 반드시 세례를 베푸는 방법을 습득해 두어야 한다. (海老沢有道 1991:96-7)

즉 세례는 원칙적으로 사제가 베푸는 것이지만 사제가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기리시탄(그리스도인)도 세례를 베풀 수 있다는 말이다. 또한 세례 및 통회에 관한 소양서(素養書) 『병자를 도우는 소양(病者を扶くる心得)』(1593년)(이하 『병자』로 표기)에서도 『도치리나』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고 있다.

(세례를) 베푸는 자는 사제이어야 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데 사제가 없어서, 혹은 병으로 혹은 죽을 정도로 긴박하다거나 또는 병은 없지만 무슨 일이 있어서 바로 사제를 만날 수 없는 자에게는 남녀를 불문하고 가까이에 있는 자가 베풀어야 한다. 다만 가능하다면 여자보다는 남자가 베푸는 것이 본뜻이다.(海老沢有道他 1976:85)

그런데 사제가 아닌 기리시탄이 세례를 베푸는 일은 이러한 교리서 등의 간행 이전부터 행해져 온 관습임을 알 수 있다. 1566년 9월 5일자 선교사 프로이스(Luis Frois, 1532-1597)의 서한에 다음과 같은 경험을 기록하고 있다. 한 마을에 기리시탄 관리가 있는데 처와 장모는 비신자이고, 1남1녀 중 남자는 세례를 받았지만 5-6세 되는 여아는 처와 장모의 반대로 세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아가 병으로 죽어가게 되자 세례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는데, 오히려 장모는(이 때 처는 세례를 승낙함) 형제 관계인 한 사람의 승(僧)과 그 외 몇 명을 불러 손녀가 세례 받는 것을 막도록 했다. 그래서 선교사는 관리와 의논한 후 한 사람의 기리시탄으로 하여금 의사 복장을 하도록 하여 여아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였다는 것이다.(村上直次郎 1970a:358-9)

거슬러 올라가 보면 기리시탄 전래자 프란치스코 사비에르(Francisco Xavier, 1506.4.7-1552.12.3)가 첫 선교지인 가고시마에서 만인으로부터 존경받고 있던 미가엘에게 세례의 방법과 형식을 가르쳤다는 기록과 같이,(浜崎献作 2003:94 재인용) 전래기부터 사제가 지정한 기리시탄도 세례를 행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일정한 질서가 있었는데, 사제 부재의 경우 이르만(イルマンirmão, 修道士)이 담당하고, 긴급한 상황이라면 우선 카테키스타(カテキスタcatechista, 伝道士)나 도쥬쿠(同宿)[6]가 담당하고 이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 일반 신자도 담당하게 되어 있다. 한편 유아세례

의 경우는 긴급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예수회 회원인 이르만이나 카테키스타가 집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긴급한 경우는 일반 신자인 감보(看坊)[7]를 비롯하여 교육받은 산파에게까지 위임토록 하였다. 이는 비록 아이일지라도 세례를 통한 영혼 구원을 소중히 여긴 결과이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긴급한 상황'은 일본 주교 세르케이라(Luis Cerqueira, 1552-1614)의 방침에 의하면 다음 4가지에 한하고 있다.

① 박해로 인하여 선교사의 입국이 금지된 지방

② 선교사의 장기 부재

③ 수세자(受洗者)가 빈사 상태라든지 전쟁에 갈 때와 같은 경우

④ 세례를 받으려면 3일 이상의 여정이 필요한 때와 같은 경우(純心女子短期大学 1989:15)

교리서는 사제의 장기 부재 등 긴급한 경우 기리시탄 누구나 세례를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지만 기리시탄이 임의로 행사한 것은 아니며, 차 순위로 사제 전 단계의 위치에 있는 이르만이나 도쥬쿠가 담당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지정되거나 위임받은 기리시탄이 행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2 잠복시대의 세례 집례자

선교사 및 도쥬쿠 등의 검거와 처형으로 1632년에서 1634년 무렵 일본에 잠복한 선교사는 겨우 10여 명에 지나지 않게 되자, 신앙을 서로 격려하며 병자나 빈궁한 자들을 도와왔던 신앙 공동체 콘프라리아(confraria)가 선교사를 대신하여 교화활동의 중심이 되면서, 신앙유지를 위해 지하조직으로 변하게 된다. 여기에 사제도 교회도 없는 상황에서 신앙을 이어가기 위하여, 사제의 역할을 대신하고 의식을 행하는 지도자를 세우고 독자적인 교회력을 따라서 행사나 예배, 세례 등을 행하며 신앙의 암흑기를 이어 나가게 된다. 여기서는 이러한 지도자 중에서 세례 담당자와 그 역할을 잠복시대의 기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잠복시대 말기인 1856년 우라카미(浦上, 現 나가사키시(長崎市) 북부에 위치하는 옛 지명) 지역에서 발생한 '우라카미 세 번째 검거(浦上三番崩れ)'[8] 사건 당시의 취조 기록(「肥前國浦

6) 비회원. 장차 사제나 이르만을 희망하는 자로 교회에 거주하면서 장의(葬儀)나 미사, 세례, 설교, 교리교육 등에서 선교사를 도우고, 기타 성구 보관, 내방객의 접대, 문서수발 등을 행하였다. 예수회의 경우 1609년 사제 63명, 이르만 74명일 때 도쥬쿠는 301명이다.(柳田利夫 1978:56)

7) 비회원. 교회를 보살피고 기도를 가르치며, 사람들에게 낭독하는 자이다.

8) 기리시탄 조직이 발각·검거되는 사건. 오무라(大村) 지역의 고리 검거(郡崩れ, 1657년)를 시작으로, 오이타현(大分県) 지역의 붕고 검거(豊後崩, 1660-1682), 아이치현(愛知県) 지역의 노비 검거(濃尾崩れ,

上村百姓共異宗信仰いたし候一件御仕置奉伺候書付」)에 최고 지도자인 기치조(吉蔵)[9]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 祭日日繰種々の善悪等申教候ものを惣頭、触事等取斗候を触頭と唱、其場所々々にて組分いたし、信仰の内より聞役と唱候もの右触頭の手に付世話いたし候は先前よりの仕来にて…(片岡弥吉他 1972:834) 축일이나 교회력, 여러 종류의 길흉(吉凶) 등을 판단하는 자를 소가시라(惣頭), 알리는 임무를 맡은 자를 후레가시라(触頭)라고 하며, 지역마다 나누어진 신앙 조직에서 활동하는 기키야쿠(聞役)라고 하는 후레가시라의 보좌역 등은 이전부터 관례로…

<그림 2> 帳方屋敷跡
쏘카타(기치조)의 집터 유적
所在: 長崎市永井隆記念館 入口

결국 소가시라→후레가시라→기키야쿠에 이르는 지도 체제가 형성되어 있고, 임무도 각각 부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기치조는 후레가시라가 세례를 집례하는 의식(儀式) 전반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 佛前江水を備、經文三篇相唱、右水に指先を濯額に十文字を認、右をホウチイスモ(세례를 뜻하는 バウチズモbautismo의 변용)の水と申為呑異名を付遣し… (片岡弥吉他 1972:835) 불전에 물을 준비하고, 경문(라틴어 발음 세례문)을 세 번 외우고, 물에 손가락 끝을 담가 이마에 십자를 긋고, 세례수를 마시면 이명(세례명)을 붙여 보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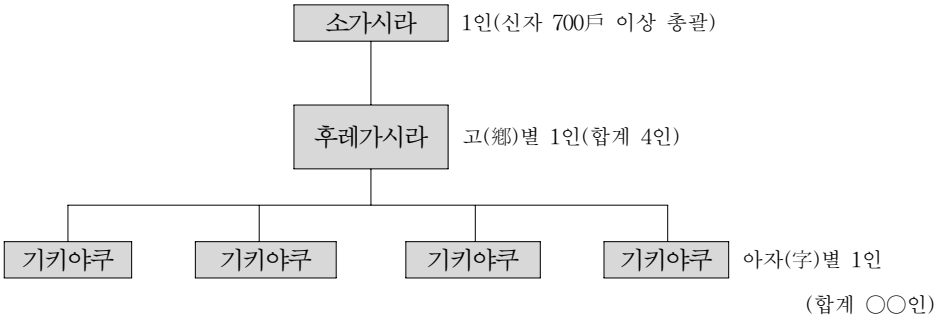
여기서 불(佛)은 주로 아기를 안고 있는 백자자모관음상(白磁子母觀音像)을 말하며, 이 앞에서 마음으로는 예수와 마리아를 떠올리면서 발각에 대비하여 불교 신자로 위장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다.

우라카미 조직 지도자의 계통 및 역할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들의 종교적 최고책임자 소가시라(다른 지역에서 주로 쏘카타로 불림)는 교회력을 소지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축일

1661), 우라카미 지역의 우라카미 첫 번째 검거(浦上一番崩れ, 1790)에서 우라카미 네 번째 검거(浦上四番崩れ, 1867)까지, 동 지역 고바 검거(木場崩れ, 1867), 아마쿠사 지역의 아마쿠사 검거(天草崩れ, 1805), 고토 지역의 고토 검거(五島崩れ, 1868) 등이 있다.

9) 우라카미에서 7대째 소가시라인 기치조는 검거를 피해 축일표와 오라쇼책 등을 가지고 소토메, 히라도, 고토로 피신했으나 결국 고토에서 장남과 함께 체포되어 나가사키로 호송되었다. 1859년 52세로 옥사하였고 장남은 추방되어 우라카미 소가시라의 대가 끊어지게 된다.

을 정한다. 이 아래 각 고(郷)에는 후레가시라가 있어 세례 집례는 물론 토요일에 소가시라의 집에 가서 다음 주의 축일과 전달 사항을 듣고, 이것을 각 아자(字)를 보살피는 기키야쿠에게 전하여 준다. 그러면 기키야쿠는 다시 각 신자의 집에 전달하고 신자들의 상황을 위에 보고한다. 결국 이 지도자 3역과 신자가 독립된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다. 우라카미 야마자토촌(浦上山里村)은 모토바루(本原), 나카노(中野), 요노(家野), 사토(里), 마코메(馬込) 등 다섯 고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코메를 제외한 4곳은 거의 모두 기리시탄이다. 이 지역 신앙 조직을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우라카미 야마자토촌(浦上山里村)의 잠복 기리시탄 지도자 조직

한편 아마쿠사 지역(現 天草県 天草市 일원)의 신앙 조직은 1805년에 일어난 '아마쿠사 검거(天草崩れ)' 사건 당시의 진술 기록으로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마토미촌(今富村) 한 신자의 증언에 의하면 예배는 신자 순서대로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상(佛像)을 소지하고 있는 집에 모여 진행된다는 것이다.[10] 이는 신앙 지도자와 구성원이 구별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 지도자가 세례도 담당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지도자의 호칭이나 조직 체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다만 다음의 진술 기록이나 해금 직후 선교사들의 기록을 통하여 대략 몇 가지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우선 다카하마촌(高濱村) 신자의 진술과 같이 돈사(頓死)한 숙부로부터 세례(十文字)역을 전수받았다[11]는 사실로 볼 때 세례역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이다. 또한 1882년 파리외방선교회 페리(Bernard-Joseph Ferrie, 1856-1919) 신부의 이마토미촌에 관한 기록 중에 "오사키타쓰조(大崎辰造)는 뛰어난 미즈카타(水方)이다."(浜崎献作 2003:551, 재인용)라는 내용이 있다. 해금으로부터 불과 수 년 뒤의 기록임을 고려할 때 세례역 미즈카타는 이 지역

10) 祭之儀ハ仲間順番ニ相勤候義ニ而ハ無御座佛像持之家ニ佛拝ニ参リ申候 (九州史料刊行会 1959a:48)
11) 叔父甚左衛門十二年以前頓死し、その後十文字ノ伝授申候。(浜崎献作 2003:102)

잠복 기리시탄이 사용한 호칭임을 추정할 수 있다.

잠복기의 세례 전승과 관련한 사실은 해금이 있기 수 년 전인 1865년 3월 17일 프티쟌 신부도 확인한 바 있다. 신부는 오우라 성당으로 찾아 온 14-5명으로 보이는 우라카미(浦上) 지역 잠복 기리시탄의 존재를 처음 발견한 '신자발견(信徒発見)'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맞이하였고, 며칠 후 3월 23일 우라카미 지역으로 가서 신자 파오로(パオロ)를 만나고, 그로부터 들은 내용을 서간(書簡)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아이가 태어나면 부근의 미즈카타를 불러, 물을 갓난아이(嬰兒)의 머리에 뿌리고, 십자가 표시를 하고, 여기에 이름을 붙여 뭔가 기도를 한다. 그래서 자신은 파오로(パオロ), 처는…주일과 축일을 지키고, 지금은 사순절을 보내고 있다.…이제까지 오라쇼를 드릴 교회도 없고, 가르쳐 줄 교사도 없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 아주 힘든 일 이었다"고 대답했다.(浦川和三郎 1928a:232)

이와 같이 증언하고 있는 파오로는 지도자가 아니어서 세례와 관련된 오라쇼는 외우지 못하지만, 가족이 세례를 받고 신앙 지도자의 지도 아래 기리시탄 신앙을 잘 이어왔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기리시탄으로 살면서도 사제가 없다는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아픔은 잠복 기리시탄으로 살아온 그의 선조들에 있어서도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지만 이는 일·불수호통상조약(1858년)에 근거하여 거류지 내 프랑스인의 종교 활동을 위한 명목이며, 아직도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암흑기는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아무튼 이 증언에 한정하여 본다면 사제의 지도가 전무한 상황에서 오랜 금제기간 동안 세례를 비롯한 신앙 활동이 얼마나 자치적으로 잘 전승되었는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이상 우라카미 지역 및 아마쿠사 지역의 세례 집례자와 세례 전승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이들의 후손인 가쿠레키리시탄도 지도자 호칭에 있어서 다음 <표 1>과 같이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키쓰키나 히라도 일부 지역의 경우 최고책임자인 오지야쿠(オジ役) 등이 세례를 담당하고 있고, 기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실무자로 세례역을 뜻하는 미즈카타(水方)나 사즈케야쿠(授け役) 등이 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잠복시대에도 이러한 세례가 전승되어 왔음을 말해주고 있다.

<표 1> 지역별 가쿠레키리시탄의 지도자 호칭[12)]

구분	지역	지도자					
		책임	실무	보좌·연락			
		帳方/帳役	水方/水役	取次役	聞役	下役	宿老
長崎·外海·五島系	長崎 家野町, 浦上	惣頭	触頭		○		
	長崎長崎半島 岳路	○	○		○		
	外海 出津	○	○ お授け役		○ 触方		
	外海 黒崎	○ 爺役	○ 看坊	○			
	五島若松島 築地, 横瀬	○	○			○	
	五島若松島 有福	○	看坊	○			○
	五島奈留島 永這	○	看坊				○
	五島奈留島 前島, 樫木山, 南越	○	○				○
	五島福江島 南河原, 宮原, 半泊, 大泊, 浜泊	○	○	○			
	五島福江島 椛島	○	○			○	
生月·平戸系	生月島	おじ様, おじい様	親父様, 御番主		役中		
	平戸島 根獅子	辻元様	水の役		辻の小役, 触役		
	平戸島 獅子	ご判の役,爺さん役	○ 水かけ役		불분명		
	平戸島 油水, 中の原, 大久保, 中の崎	ジサン役	支度役		불분명		
	天草 大江	○	○ 善人様				○

주1) '○' 표시 아래의 호칭도 사용함. 주2) 음영 표시는 세례 담당자임을 나타냄.

이상과 같이 지역별로 지도자의 호칭이 다른 곳도 있지만 신앙공동체라는 조직을 만들고 지도자를 세워, 세례를 전승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도치리나』에서 "사제가 없는 곳이라도 이 세례는 자주 필요한 것이므로, 기리시탄은 누구라도 반드시 세례를 베푸는 방법을 습득해 두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실천한 것이다.

12) 片岡弥吉(1997)『かくれキリシタン―歴史と民俗』日本放送出版協会, 宮崎賢太郎(2008)『カクレキリシタン オラショ ― 魂の通奏低音』長崎新聞社 등을 참조하여 구성하였음.

3. 수세자(受洗者)의 자격은 적합한가

수세자에게 요구되는 올바른 자격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하여 『도치리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사물의 도리를 아는 자라면, 우선 기리시탄이 될 것을 희망하고, 과거의 죄과를 슬피 후회하고, 이 후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려는 각오로 이 성사(聖事)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海老沢有道 1991:94)

즉 지나간 죄를 통회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킬 것을 각오하고 신자가 되려는 자에 한하여 세례를 준 것이다. 그러나 지난 죄를 통회하는 데에는 우선 자신이 데우스를 떠난 죄인임을 깨닫는 과정이 선결 조건이며, 이 또한 수일에 걸친 설교를 듣거나 가르침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여기서는 가르침을 받는 과정을 '세례 전 교육'으로 칭하여 살펴보고, 또한 "기리시탄이 될 것을 희망"하는 부분을 '세례 지원'으로 칭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로 신분의 변화를 뜻하기도 한다. 세례 성사는 이러한 조건이 구비된 자에게 베푸는 것으로, 그리스도 자신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기 위하여 정한 외적인 상징이요 형식인 것이다.

기리시탄시대에는 구도자(求道者)가 수일에 걸쳐 설교를 듣거나 교육을 받은 사실이 선교사 서신에 잘 나타나 있고, 전술한 여러 조건이 충족된 자에게 세례를 준 것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잠복시대는 금제기이므로 그러한 기록을 자유로이 남기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증명할 길은 없다. 다만 잠복 기리시탄은 그 이전 기리시탄의 후예요 가쿠레키리시탄의 선조이므로, 기리시탄 시대 및 가쿠레키리시탄의 세례 전 교육 연구를 통하여 그 시대의 교육을 추정해 보고자 한다.

3.1 기리시탄시대의 세례 전 교육

세례 전 교육에 사용된 교리서로는 전래자 사비에르가 편찬한 『29개조 교리서(29ヵ条の教理書)』를 비롯하여 이후에 간행된 『도치리나』 등의 교리서가 사용되었다. 사비에르는 교리 교육의 철저를 지시한 바 있는데 그 이행 절차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세계만물을 창조한 데우스의 존재에 대하여 설명한다.

② 구도자들이 자신의 의문 사항을 질문한다.

③ 일본의 모든 종교를 설명해 주고, 구도자들에게는 이 설명 내용과 자신의 종교 양자를 비교토록 하여 상이함을 알게 한다.

④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논박한다.

⑤ 그 후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가르친다.(青柳·沙彩 2009:45-50, 재인용)

이후 1564년 3월 6일자 프로이스의 서신(書信)에 나타난 세례 전 교리 교육의 순서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순서는 우선 우주의 창조자가 있어 세계는 시작되고, 그들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영원히 존재하지 못하며 일월 및 생물도 데우스에 미치지 못함을 증명한다.

② 다음으로, 영혼은 육체에서 떠나도 영원히 생존하는 것을 입증하고, 이것을 이해하면 자연계의 사물에 관한 다수의 질문에 대답하게 한다.

③ 일본의 종교 특히 각 사람이 믿는 것을 논하여 명료한 이유를 들어 모두 허위임을 설명한다.

④ 이것을 이해하면 세계 창조, 천사 타락, 아담의 죄를 설명하고, 나아가서 데우스의 아들이 세상에 오심, 신성한 수난과 죽음 및 부활과 승천, 십자가의 비의(祕義), 최후의 심판, 지옥의 고환(苦患), 그리고 복된 자의 광영을 설명한다.

⑤ 이를 이해한 후 세례 전에 데우스의 계명과 정교회(正教會)의 계율을 충분히 설명하고, 종래 행한 이교도의 의식을 미워하고, 주의 가르침을 신봉하여 과거의 죄를 뉘우칠 것을 권한 연후에 세례를 주고 또 이 의식의 필요성과 그 비의(祕義)를 설명한다.(村上直次郎 1970a:221-2)

또한 1571년 10월 5일자 선교사 빌렐라(Gaspar Vilela, 1525-1572)의 서신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

① 영원무궁한 한 분의 데우스가 있어 만물의 창조자이다.

② 인간에게 영혼이 있는데, 영혼은 어떤 것인가. 또한 인간과 다른 피조물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③ 이것을 이해하면 창세기에 근거하여 세계의 창조, 천사의 타락, 아담의 범죄.

④ 삼위일체의 의미.

⑤ 예수 탄생 및 고난, 속죄, 부활, 승천 등.

⑥ 십계명.

⑦ 세례의식에 관하여 수일간 가르친 후 세례를 베푼다.(村上直次郎 1970b:214)

문장상 약간의 차이는 나타나고 있지만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즉 우주의 창조자인 유일신 데우스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인간에게는 멸하지 않는 영혼이 존재한다는 사실, 당시 일본의

종교는 모두 허위임을 설명한다. 이때 상호간 질문과 대답을 곁들인다. 이것을 이해한 자에게 천지창조와 예수 그리스도 등 성서의 핵심을 가르친 후 회개하는 자에게 세례를 준다는 것이다.

선교 현장에 사용된 이러한 교육 내용은 결국 올바른 세례가 되기 위한 수세자의 자격 조건을 명시한 교리서 『도치리나』와 상통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교육 기간은 어느 정도였는가. 선교사 가운데도 비교적 관대한 자도 있고 엄격한 자도 있지만 적어도 일주일에서 10일, 때로는 40일에 걸친 경우도 적지 않다. 설교의 경우 선교사의 복무규정에 의하면 1일에 한 번만 하고 같은 내용으로 일주일간 반복하게 했다. 그리고 십계명을 잘 이해시키고 특별히 항해나 전쟁에 나가는 자에게는 3일로 단축하는 한편 하루에 두 번 설교하게 했다.(純心女子短期大学 1989:10, 재인용)

또한 설교는 교리 교육 전 수 차례에 걸쳐 들어야 하는 선행 절차이지만, 단지 설교를 들었다는 것만으로 세례를 주는 예는 볼 수 없다. 설교가 이해되면 교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여기에는 예수회가 정한 세례 문답(問答)이나 사도신경, 주기도, 십계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예외적으로 데우스를 유일신·창조주로 고백하는 정도에서 세례를 준 경우도 볼 수 있다.

엄격하고도 시간을 필요로 하는 세례준비과정의 설정은 단순히 이름뿐인 신자의 양산을 지양하고, 진실된 그리스도인을 통한 수용지(受容地)의 변혁과 외방 선교사가 아닌 일본인을 통한 그리스도교 토착을 염원했던 연유이다.

3.2 잠복시대의 세례 전 교육

기리시탄시대는 선교지의 점진적인 확대를 통한 포교이므로 장년층 세례가 많지만, 잠복시대는 기리시탄 공동체 조직이므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세례를 청원하는 전통에 따라 유아세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실제 세례 전 교육은 소년이나 장년 위주로 실시되었을 것이다. 다만 금제기 전과 같이 공개적으로 설교를 듣거나 교리를 공부하고 오라쇼를 배우는 일은 불가능한 시대이므로 가정이나 비밀 처소에서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가쿠레키리시탄 지도자가 아닌 일반 신자도 「파테르 노스테르(ぱあてる なうすてる Pater noster, 주기도)」「크레도(けれど Credo, 사도신경)」「아베 마리아(あべ まりや Ave Maria, 天使祝辭)」 등의 오라쇼 뿐만 아니라 기본 교리 정도는 통째로 외우는 것을 보면, 잠복시대에도 세대를 이어 교육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소토메 구로사키의 경우 옛날에는 사순절 야간에 가레마츠신사(枯松神社)에 오르는 길 좌측에 있는 '기도 바위(祈りの岩)'에 숨어서 여러 날에 걸쳐 오라쇼를 가르치고 외우게 하는 등의 교육과정이 있었다.(宮崎賢太郎 2008:

273) 또한 잠복 기리시탄과 가쿠레키리시탄에 정착되어 있어 의식 중에 대부모(代父母)[13]가 미즈카타의 질문에 유아를 대신하여 답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잠복시대에도 드문 예이지만 유아가 아닌 소년이상의 수세자라면 이러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교리 교육이나 신앙의 조건위에 세례를 주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전래 초기만 해도 철저한 교육의 성과 위에 기리시탄이 배출되었지만, 단기간에 급격히 증가한 신자와 사제의 부족으로 교육의 불충분을 초래하게 된다. 게다가 전래로부터 약 60년 후인 1614년 전국적인 기리시탄 금제가 본격화되자, 기리시탄들은 불교나 신도 신자로 위장하면서 신앙을 계승하는 사이, 교의는 더욱 상실하게 되고 민속 신앙이나 기성 종교와 습합하게 되는 경우도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세례를 비롯한 기리시탄 신앙이 전승된 결과 신앙으로 인해 많은 순교자가 나오기도 하고 해금 당시 다시 교회로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이며, 이러한 사실로 보아 기리시탄시대의 세례 전 교육과 신앙고백 위에 세례를 주는 과정은 여러 갈래로 변용되어 가면서도 전승되어 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3.3 세례 지원

세례는 기리시탄이 될 것을 희망하여 지원하는 자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가쿠레키리시탄의 경우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부모가 세례일로 부터 일주일 또는 며칠 전 미즈카타에게 세례 신청을 하는 것으로 보아 희망자에게 세례를 행사하는 전통이 잠복시대에도 전승되어 왔음을 유추할 수 있다.

가쿠레키리시탄 유아 세례의 경우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있는데, 이마무라(今村)의 경우 생후 즉시, 소토메 싯쓰(外海 出津)나 구로사키(外海 黒崎) 3일 이내, 히라도 네시코(平戸 根獅子) 3일째, 고토 아리후쿠(五島 有福) 3일에서 7일 이내, 고토 요코세(五島 横瀬) 7일 이내, 이키쓰키 모토후레(生月 元触) 1-2세, 이키쓰키 야마다(生月 山田) 3세, 이키쓰키 이치부(生月 壱部) 4-5세 등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지역에 따라 상이한 것은 잠복시대를 통하여 조직 독자적인 전승, 마을의 경제 상황이나 가정 형편 등에 따른 관습의 변화와 연구자별 가쿠레키리시탄 조사 시점에 따른 차이도 간과할 수 없다. 아무튼 이상 열거한 지역의 가쿠레키리시탄은 생후 3일 이내의 곳이 많고, 잠복시대 아마쿠사(天草)의 경우 3일째에 행한 점, 가톨릭 전통이 유아세례를 원칙으로 하여 대부분 생후 3일 이내에 행하였던 점(古野清人 1973:343) 등을 고려한다면 '생후 3일 이내 수세(受洗)'라는 기리시탄시대의 전통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루

13) 세례의 증인이 되고 영적인 친족관계를 맺어 수세자를 지속적으로 보살피는 역할을 한다.

어져 온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가능한 한 빨리 세례를 받도록 한 것은 유아의 사망률이 높은데 기인하지만, 은총 받는 데우스의 자녀로 자라나기를 원하는 신앙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4. 세례 집례자의 세례 의식(儀式)은 적합한가

세례 집례자에게 요구되는 적합한 세례 의식의 조건은 무엇인가. 적합하고 유효한 세례가 되기 위하여 교리서 등에서는 선포 할 세례문과 집례자가 해야 할 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간행 연대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치리이나』(1591년) 是を授かる人の頭か、せめて其人の身の上に水を掛くると共に、此文を唱ゆべし。いかに○ぺとろ、ぱうろとなり共、名を付て、○それがしでうす-ぱあてれ･ひいりよ･すぴりつ-さんとの御名を以てなんぢを洗ひ奉るなり。あめんと云べし。是を経文の唱へには、○何の名なり共、付て後、(라틴어 발음)ゑご○て○ぱうちいぞ○いんのうみね○ぱあちりす○ゑつ○ひいりい○ゑつ○すぴりつす○さんち○あめんと云也。(海老沢有道他 1976:65)
(Ego te baptizo in nomine Patris, et Filij, et Spiritus Sancti, Amen.)
『병자』(1593년) 水を頭にかくる内に、此文を唱ゆべき事。(라틴어 발음)ゑご○て○ぱうちいぞ○いんのうみね○ぱあちりす○ゑつ○ひいりい○ゑつ○すぴりつす-さんち○あめん。自然、是を申事かなはざる人は、かくのごとく唱へて、授くべし。それがし○でうす-ぱあてれと○ひいりよとすぴりつ-さんとの御名を以てなんぢを洗ひ奉る也。あめん。(海老沢有道他 1976:85-6)
『도치리나』(1600년) これをさづかる人のかうべか、せめてその人の身のうへに水をかくるとともにペイトロとか、パウロとなりとも名をつけて此もん(文)をとなふべし。たとへば、いかにペイトロ パアテレと、ヒイリヨと、スピリツ サントの御名をもてそれがしなんぢをあらひ奉る、アメンといふべし。これをきやうもん(経文)のとなへには。(라틴어 발음)ペテレ、エゴテ パウチゾ イン ノミネ パアチリス、エツ ヒイリイ、エツ スピリツス サンチ、アメンと。かくのごとくキリシタンのいづれの名なりともつけてのちとなふべし。(海老沢有道 1991:94-5) 세례를 받는 사람의 머리라든지, 하다못해 그 사람의 신체위에 물을 뿌림과 동시에, 베드로라든지 바울 등으로 이름을 붙여 이 문장을 외워야 한다. 예를 들면, 베드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본인이 세례를 주노라 아멘이라고 말한다. 이것을 라틴어로 할 때는 …(내용 동일) 이와 같이 기리시탄의 어느 이름이라도 붙인 후에 외워야 한다.(『도치리나』를 번역한 것임. 책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내용은 동일함.)

간략하면 세례 의식에 있어서는 세례문과 물을 뿌리는 행위 이 두 가지가 적합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4.1 적합한 세례문인가

세례문의 경우 집례자가 수세자에게 물을 뿌리는 행위와 동시에 수세자(受洗者)의 세례명을 부르면서 성삼위(聖三位)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도록 하고 있다. 또한 "문장도 완전히 외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본인'이라는 말이라든지 '아멘'이라는 말이든지, 또는 세례 받는 자의 세례명을 말하지 않아도 세례이다.(『병자』에는 세례문에 세례명이 없음) 이 세 가지 이외의 어휘를 생략해서 남은 단어 중 하나라도 빠질 경우는 세례를 준 것이 아니다."(海老沢有道 1991:95)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세례문 예문에 대하여 교리서와의 적합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2>는 원문과 예문을 비교하기 쉽도록 문장을 3구절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

잠복(말기) 기리시탄의 세례문

① 이키쓰키(生月) エ·テ·バスティゾ·イン·ノミネ·イツツタイ·エルザレム-サンクティ(純心女子短期大学 1989:19)

② 히라도 네시코(平戸 根獅子) 汝がデウスのヒーリオ·スピリト·サントの御名に依つてたのみ奉る。アンメン·ジズー。我等悪人で御座いまする。サンジワン様の御名代おほせつけられ、御言葉の御水を授けたまひや。アニマで御座る。サンパウロ様や、サンジワン様、サンフランシスコ·ザベリオ様に依り頼み奉る。(대부와 대모의 이름을 부른 후)此の二人がアニマの親で御座る。(수세자에게 세례명을 붙인 뒤)洗ひ奉る。(浦川和三郎 1928b:802-3)

③ 우라카미(浦上) 此人をバオチゾ·イン·ノメン·パテロ·ヒリオ·エトスラ·スピリツ·サント·ヤームン(浦川和三郎 1928a:241)

④ 고토 가바시마(五島 椛島) ヨコテ、バウチ、イーヅーモ、イノメ、パーテル、エツ、ヒリヨ、エツ、スベリト、イノメト、サンヂ、エリアンジョ。アメン。(浦川和三郎 1928b:828)

⑤ 고토 나루시마 아리후쿠(五島 奈留島 有福) ヨコテ、パーテル、イノメモ、パウチヅモ、エツ、ヒーリヨ、スベツト、サントノ、チサンチツ。(浦川和三郎 1928b:828)

⑥ 아마쿠사 이마토미(天草 今富) デス(デウス)をもってサンタジュに水をしっかと授け給う引き渡すぞべ、ヒデスヒデス、イッシナ、ヒデス、エゴテバー、万事にかない給うデスの子なるサチハイソチハイかたじけない アンメン。ジェスさま。(浜崎献作 2003:362 재인용)

(③ 우라카미를 제외한 예문은 변용이 심하여 문장 해석이 곤란함)

해금 직후(明治時代 初期) 교회의 세례문

(『세례성사(洗滌之秘跡之事)』)[14] えご て ぱぷちぞ いんのみね ぱちりす えつ ひりい えつ すぴりとす さんち(純心女子短期大学 1989:84, 재인용)

(『성교초학요리(聖教初学要理)』)[15] 吾聖父と聖子と聖神との御名に依て汝を洗ふ(純心女子短期大学 1989:127, 재인용)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신(성령)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세례를 주노라.

<표 2> 세례문(라틴어 발음문/일본어문)의 어휘 비교

구분		구절①	구절②	구절③
라틴어 발음 원문	라틴어문	Ego te baptizo	in no mine	Patris, et Filij, et Spiritus Sancti, Amen.
	『도치리이나』 『병자』	ゑご て ぱうちいぞ	いんの うみね	ぱあちりす ゑつ ひいりい ゑつ すぴりつ すさんち あめん
	『도치리나』	ペテレ エゴテ パウチゾ	イン ノミネ	パアチリス エツ ヒイリイ エツ スピリツス サンチ アメン
잠복기리 시탄	①이키쓰키	エ・テ・バスティゾ	イン ノミネ	イツツタイ・エルザレム-サンクティ
	③우라카미	此人をバオチゾ	イン ノメン	パテロ・ヒリオ・エトスラ・スピリツ・サント・ヤームン
	④고토 가바시마	ヨコテ バウチ イーヅーモ	イノメ	パーテル エツ ヒリヨ エツ スベリト イノメト サンヂ エリアンジョ アメン
	⑤고토 나루시마 아리후쿠	ヨコテ パーテル	イノメモ	パウチヅモ エツ ヒーリヨ スベツト サントノ チサンチツ
	⑥아마쿠사 이마토미	デスをもって… エゴテバー		万事にかない給うデスの子なるサチハイソチハイかたじけない アンメン ジェスさま
해금 후 교회	『세례성사』	えご て ぱぷちぞ	いんの みね	ぱちりす えつ ひりい えつ すぴりとす さんち

구분		구절①	구절②	구절③
일본어 원문	『도치리이나』	それがし	でうす-ぱあてれ・ひいりよ・すぴりつ-さんとの御名を以て	なんぢを洗ひ奉るなり あめん
	『병자』	それがし	でうす-ぱあてれとひいりよとすぴりつ-さんとの御名を以て	なんぢを洗ひ奉る也 あめん
	『도치리나』	いかにペイトロ	パアテレと ヒイリヨと スピリツ サントの御名をもて	それがしなんぢをあらひ奉る アメン

14) 1873년(明治 6年) 프티쟌 신부가 편찬한 세례 지도서

15) 주교(主教) 베드로 마리아(伯多禄瑪利亞, Pierre M. Osouf)가 승인한 교리서

구분		구절①	구절②	구절③
잠복기리시탄	②히라도 네시코		汝がデウスのヒーリオ·スピリト·サントの御名に依つてたのみ奉る アンメン·ジズー 我等悪人…アニマの親で御座る…	洗ひ奉る
해금 후 교회	『성교초학요리』	吾	聖父と聖子と聖神との御名に依て	汝を洗ふ

① 이키쓰키 예문(라틴어 발음문)

적합한 세례문이 되기 위한 필수 어휘 중 삼위(성부, 성자, 성령)가 빠져 있다. 이 지역 가쿠레키리시탄은 일본어 세례문[16]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라틴어 발음문과 일본어문이 함께 전승된 것으로 보인다.

② 히라도 네시코 예문(일본어문)

예문의 시작과 끝은 세례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그 사이에 바울(サンパウロ様), 요한(サンジワン様), 프란치스코 사비에르(サンフランシスコ·ザベリオ様) 등 성인의 이름 외에도 여러 내용의 오라쇼가 삽입되어 있다. 또한 デウスのヒーリオ는 でうす-ぱあてれ·ひいりよ(성부·성자)의 변용으로 명확한 의미를 알 수 없다.

③ 우라카미 예문(라틴어 발음문 + 일본어문)

우라카미 지역은 전술한 바와 같이 마을 구성원 대부분이 기리시탄이고, 해금 전 1865년 역사적인 기리시탄 부활사건(신자 발견)의 장본인이 살아 온 마을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모범적인 신앙의 결과 잠복 기리시탄 거의 모두가 해금 후 교회로 복귀할 수 있었고, 세례문에 있어서도 라틴어 발음문과 일본어문을 혼용하고 있지만 해석이 가능한 적합한 문장으로 여겨진다.

이 예문은 해금 8년 전인 1865년 파리 외방선교회 로카뉴(J.M.Laucaigne, 1838-85) 신부가 이곳에서 금제기 최후의 미즈카타(水方, 세례 담당자의 호칭) 도밍고 마타이치(ドミンゴ又一)를 만난 기록에 나타나며 그의 세례는 유효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이다. 다만 신부가 알아듣지 못하는 어휘가 있었는데 그것은 일본어와 라틴어 발음이 혼용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라틴어 발음 원문이 "エゴ テ"(Ego te)로 시작되는데 エゴ(본인은)가 빠져 있고, テ(그대를) 대신에 일본어 此人を(이 사람을)를 대체한 이유일 것이다. 또한 나머지 문장도 원문과는 약간 다르지만 신부가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기타 パテロ는 일본어문 パアテレ(Pater,

16) 이키쓰키 이치부(生月 一部) ジワン某 デーウスと パーテルと ヒーリョーと スペリトサントの御御名をもーて 我 ただ今 汝洗い奉るなるや アンメゾー(純心女子短期大学 1989:21)

아버지)를 취한 후 변용된 결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원문과 달라도 유효한 세례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인데, 여기에 대하여 신부는 “유효하지 않다는 단정이 내려지지 않는 한 우선 유효하다고 간주해야 한다.”(浦川和三郎 1928a:241-2)고 말하고 있다.

④ 고토 가바시마 예문(라틴어 발음문)

기본적으로 라틴어 발음문인데 예문상의 パーテル, ヒリヨ는 각각 일본어 문장의 パアテレ(Pater, 聖父), ヒイリヨ(Filho, 聖子)의 변용이다. 적합한 문장에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 전승이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⑤ 고토 나루시마 아리후쿠 예문(라틴어 발음문)

성부(聖父)를 뜻하는 パアチリス 대신에 세례를 뜻하는 パウチヅモ(Baptismo)로 대체되어 있어 적합하지 않다.

⑥ 아마쿠사 이마토미 예문(라틴어 발음문)

세례문 외에 다른 문장이 혼합되어 있으며, 실제 세례문에 들어가는 어휘는 몇 단어에 불과할 정도로 변용된 상태이다. 万事にかない給う라는 구절은 통회의 절차서 『곤치리산노리야쿠(こんちりさんのりやく)』(1603)「곤치리산노오라쇼(こんちりさんのおらしよ, 통회의 기도)」 또는 『도치리나』「크레도(けれど, 사도신경)」 등의 시작부분으로, 이 예문 다른 곳에서도 발견된다. 또한 ヒデス(fides, 신앙)ヒデス…ヒデス…サチハイソチハイ(의미 불명)와 같이 동일 어휘가 반복되는 주문(呪文)형태도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잠복 기리시탄이 수없이 암송하던 다른 제목의 오라쇼 일부가 자연스레 도입되거나 전승과정에서 와전되기도 하며, 당시 성행하던 산악신앙 슈겐도(修験道)의 주문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エゴテバーは 원문 ヱゴテ パウチゾ(Ego te baptizo)가 줄어든 것이며, 전반부의 산타쥬(サンタジュ)는 세례명으로 세례를 줄 때 수세자의 세례명을 부르도록 한 가르침에 따른 것이다.

이상 열거한 지역 이외에 몇 가지 예화를 찾아보고자 한다. 프티쟌 신부는 자기를 찾아온 가미노시마(神の島, 나가사키만에 위치) 미즈카타와 대화해 본 결과 그의 세례문은 발음도 명료하고 유효하다고 말하고 있다.(浦川和三郎 1928a:328)

또한 프티쟌 신부를 찾아온 다카시마(高島, 나가사키반도에 위치)나 히라도(平戸, 규슈 북부에 위치)의 지도자들은 다행히 세례가 유효하였다. 그러나 구로시마(黒島, 사세보市에 위치)는 100호 정도의 적은 기리시탄이 살고 있음에도 세례 용어가 틀림으로 완전 무효여서 세례 방식과 용어를 가르쳐 주었다고 한다. 또한 고토(五島, 규슈 최서단에 위치)의 여러 섬에서 온 지도자들은 세례가 유효한 것도 있고 무효인 것도 있다고 한다.(浦川和三郎 1928a:346-7)

세례문 속에 다른 문장이 혼합되어 있는 현상도 흔한데, 히라도 네시코의 예문에서 잘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은 미즈카타가 세례 의식에 들어가기 전 오라쇼「아베 마리아」를 500회 외울 뿐만 아니라, 세례 의식이 끝난 후에도 감사의 표시로「키리 아베마리아」[17]를 63회,「크레도(사도신경)」를 1회 외움으로써 행사가 끝난다.(浦川和三郎 1928b:803) 기타 지역에서도 의식 전후에 여러 오라쇼가 추가되는 현상은 대동소이하다.

다만 기리시탄시대와 해금 후 교회의 공식 세례문을 보아도 의미는 동일하지만 문자는 상이하듯이, 이들의 세례문이 교리서가 말하는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문자의 변용만을 가지고 세례문 자체가 무효라 단언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음은 세례문에 나오는 세례명에 관한 것이다. 세례명을 세례문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례명을 부르지 않은 경우도 유효하다고 가르치고 있다. 예문에 보듯 세례명이 빠진 세례문도 있지만 세례명만은 세례 의식 어느 시점에서 받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잠복 기리시탄들이 세례명을 가리키는 이명(異名)을 받는다고 진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우라카미 3번째 검거'에서 체포되어 옥사한 자 중에서 보면 이낫시오(イナッシオ, 예수회 창시자 이그나시오), 미기루(ミギル, 대천사 미가엘), 페토로(ペトロ, 베드로), 시몬(シモン, 시몬), 지완(ジワン, 요한), 로렌소(ロレンソ, 기리시탄시대 일본인 修道士), 지완 바푸치스타(ジワンバプチスタ, 세례 요한) 등이 있다.

또한 '아마쿠사 검거(天草崩れ)' 당시 다카하마촌(高濱村) 기리시탄을 조사하여 그 명단을 기록한『수상한 신자들의 세례명부(宗門心得違惣人別異名覚帳)』(九州史料刊行会 1959b: 65-80)에 보면 남자 140명, 여자 116명 전체 256명 가운데 9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세례명이 함께 적혀 있다. 그 중에는 페토로(ペエトロ, 베드로) 3명, 토멘스(トメンス, 토마스) 1명, 미기리스(ミギリス, 미가엘) 1명 등 5명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일률적으로 남자일 경우 쥬완/쥬안(ジュワン/ジュアン, 요한), 여자일 경우 마루야(マルヤ, 마리아)일 정도로 세례 요한과 동정 마리아를 가장 숭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례명은 모두 예수의 12제자나 성모 마리아, 성인, 천사의 이름 등을 빌어 사용하고 있다.

4.2 물을 뿌리는 방식은 적합한가

적합하지 못한 세례 의식, 즉 유효(有效)하지 못한 세례 의식이 있음도 가르치고 있는데『도치리나』는 "물을 뿌림과 동시에 (문장을) 외우지 않으면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다."(海老沢有道 1991:95)는 것이다. 한편『병자』는 "세례문이 끝난 뒤 물을 뿌린다든지 또는 물 뿌림이

17)「성모 마리아의 연도(連禱)」와 라틴어 발음「아베 마리아」로 구성되어 있다.

끝난 뒤 세례문을 외워서는 세례가 되지 못한다. …적어도 세례문이 끝나기 전에 물을 뿌리기 시작하든지, 물 뿌림이 끝나기 전에 세례문을 외우기 시작하든지 하여야 한다.”(海老沢有道他 1976:86)고 말하고 있다.

먼저 아마쿠사 지역 이마토미촌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진술기록(「今富村百姓共之内宗門心得違之者糺方日記」)에서 물을 뿌리는 의식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出生之子供宗門ニ入候節ハ本尊ニ水ノ初穂を供へ其水ニ十文字を書、亦其水ニ紙を浸し子供之額ニ当テ申候。(九州史料刊行会 1959a:55) 출생한 아이가 신자가 되려 할 때는 본존(데우스)에 물을 바치고, 그 물에 십자 문자를 긋고, 또한 그 물에 종이를 넣어 아이의 이마에 댑니다.
> 何十歳ニ相成候而も宗門入候時者、元之童子ニ成し其者之後ロち外之者抱膝之上ニ載水ノ中ニ十文字を書候而紙を浸し額ニ当テ、其上ニ而アンメンジンス之唱方を傳申候。(九州史料刊行会 1959a:56) 수십의 나이라도 신자가 되려는 자는 아이 시절로 돌아가고, 그 아이의 뒤에서 다른 사람(代父母)이 안아 무릎 위에 앉히고 (미즈카타는) 물속에 십자 문자를 긋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넣어 이마에 대고, 그 위에 안멘진스(‘아멘 제즈스’의 변용)라는 말을 합니다.

이 예문에서는 세례문 문장은 찾아볼 수 없지만 의식 마지막 부분에 미즈카타가 ‘안멘진스’라고 말하는 것은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다. 또한 물을 뿌리는 의식 대신에 물에 젖은 종이를 수세자의 이마에 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기리시탄 시대에 물을 이마에 붓는 행위의 모방일 것이며, 물에 십자 문자를 긋는 것은 기리시탄 시대에 수세자의 이마에 십자 문자를 긋는 행위의 모방일 것이다. 진술자가 미즈카타가 아닌 일반 신자라면 의식을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웠던 점도 있겠지만, 이 예문대로라면 이 지역의 세례 의식은 적합하게 보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우라카미 지역의 최고지도자 기치조가 “불전에 물을 준비하고, 경문(세례문)을 세 번 외우고, 물에 손가락 끝을 담가 이마에 십자를 긋고…”(片岡弥吉他 1972:835)라고 진술한 바 있다. 죄의 씻음을 상징하는 물을 뿌리거나 붓는 행위가 아닌 물 묻은 손가락으로 이마에 긋는 방식은 교리와 다르며 세례의 의미에서도 멀어져 있다.

또한 1865년 고토(五島, 규슈의 최서단에 위치)의 여러 섬에서 프티쟌 신부를 찾아 온 잠복 기리시탄 지도자들의 경우와 같이 그들 중 과반수는 실제 세례 의식에서 세례문을 외우기 전이나 후에 물을 뿌린다는 것이다. 게다가 어떤 미즈카타는 물은 뿌리면서도 문장은 외우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신부는 이 외에 죽어서도 묘에 물을 뿌리면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을 정도로 변용된 세례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들을 재교육하거나 세례의 무효성이 보이는 자에게는 안전을 위하여 다시 세례를 주었다고 한다.(浦川和三郎 1928a:346-9)

가쿠레키리시탄의 예를 들어 보고자 한다. 소토메 싯쓰(外海 出津)나 구로사키(外海 黒崎)는 세례문을 외우면서 수세자의 이마에 오른손으로 십자를 만들어 대고, 왼손으로 물을 뿌린다. 나가사키 요노(長崎 家野)는 동시에 물을 뿌린다. 고토 아리후쿠(五島 有福)는 세례문이 끝난 후 물을 뿌린다. 미야하라(五島 宮原)는 도중에 물을 뿌린다. 이키츠키(生月) 내에서도 대부분의 지역은 세례문과 함께 뿌리지만, 세례문이 끝난 후 또는 세례문 전에 뿌리는 곳도 있을 만큼 의식에 있어서 차가 심하다.

세례문이나 물을 뿌리는 방법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례 의식이 적합하지 못해 해금 후 부활하지 못했다거나, 가쿠레키리시탄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는 ③우라카미 지역의 예문과 같이 세례문은 적합하게 보이지만 해금 후 가쿠레키리시탄이 200호나 되었으며,(浦川和三郎 1928b:825) 반대로 세례문이 적합하지 않은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교회로 복귀한 자가 많기 때문이다. 이키쓰키 2천호 모두가 신자(잠복 기리시탄)이며 이들의 세례는 다행히 유효하였다고 프티쟌 신부가 말하였지만(浦川和三郎 1915:241) ①이키쓰키의 예문은 무효임을 전술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신부가 본 세례문이 예문 ①이키쓰키의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며, 세례문은 신앙 조직이나 신자, 세례문 채집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며, 채집되지 아니한 세례문도 있기 때문일 것이다.

5. 마무리

기리시탄 시대에는 교리서의 가르침에 따라 사제가 아닌 기리시탄 일반 신자도 세례를 주었다고는 하나, 세례는 사제가 주는 것이 원칙이므로 긴박한 상황 즉 사제가 장기간 없는 경우라든가 사제가 지정한 자 정도에 한하고 있다. 그러나 기리시탄 금제기 특히 사제가 없는 잠복시대에는 미즈카타 등으로 불리는 세례 담당자에 의하여 철저히 전승되어 온 것은 검거된 신자들의 진술서나 해금 전 재입국한 선교사의 기록에서도 알 수 있으며, 가쿠레키리시탄의 세례를 통해서도 유추해 본 바 있다.

그리고 잠복 기리시탄의 전승 세례는『도치리나』등의 교리서에 적합한가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먼저 기리시탄이 세례 집례자로 적합한가의 문제는 “사제가 없는 곳에서는 남녀 불문하고 이 비적 베푸는 것을 허락”한다는 가르침에 따라 신앙 조직 내에서 세례역을 세워 전승하여 왔다. 다음은 수세자의 자격으로 ‘죄를 통회하고 기리시탄이 될 것을 희망’하였는가의 문제에 대하여는, 잠복 기리시탄의 세례가 기리시탄시대와 같이 점진적인 포교에 의한 성인

위주의 세례가 아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아이가 태어나므로 자연적으로 유아 세례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아이 부모가 세례역에게 세례를 지원하고 세례 당일 대부모가 동반하는 등 전적으로 부모나 대부모의 신앙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드물지만 유아 세례가 아닌 청장년의 경우에도 세례 지원과 집례자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함을 유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례 집례자의 세례문과 물을 뿌리는 행위의 적합여부는 오랜 기간에 걸친 변용으로 교리에 맞지 않는 지역도 많은 실정이다.

아울러 교리에 적합한 만큼 데우스 신앙이 포함되어 있느냐는 것도 중요한 물음일 것이다. 잠복기간 동안에도 신앙으로 인해 박해를 당하거나 순교당한 자가 많다. 또한 에도(江戸) 말기 1865년 잠복 기리시탄 남녀 14-5명이 감시의 눈을 피해 오우라 성당의 프티쟌 신부 앞에 나타난 '신자 발견(기리시탄의 부활)'사건은 금제로부터 250년이나 지난 일로, 전래 당시의 신앙이 그대로 지켜져 온 것은 경이로운 일이다. 금교령이 해제된 메이지(明治) 초기 나가사키 부근의 잠복 기리시탄 약 5만 명 가운데 절반 가까운 수가 교회로 복귀할 수 있었던 것도 세례 의식이라는 관습만 전승된 것이 아니라 신앙이 동반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악화 일로의 선교 상황에 처한 선교사들이었지만, 죄의 씻음과 영혼 구원의 증표인 세례에 대한 열심이 수용지에 뿌리 내려 금제기에도 전승되어 나간 힘이 된 것이다. 당시 막부의 감시와 탄압에 내몰리던 현실뿐만 아니라, 때로는 살아남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심중에 믿을 뿐만 아니라, 말로나 품행으로써 드러내는 자이니라."(海老沢有道 1991:17-8)고 하는 기리시탄의 정체성에 이율배반적으로 살아가기도 했던 그들에게, 세례는 구원의 확신을 주는 증표이기도 했다. 다만 내세(來世)에 구원받기 위하여 세례가 필요하지만 금제와 감시의 상황에서는 세례를 갈망하면서도 받지 못한 자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도치리나』는 세례를 받고 싶어도 기회가 없어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다.

【参考文獻】

青柳・沙彩(2009)「[4]外海地区における隠れキリシタンと他宗教との関わりの変化―枯松神社の祭礼を事例に―」『地理学フィールドワーク 長崎の地域調査』お茶の水女子大学文教育学部人文科学科地理学コース, pp.45-50

浦川和三郎(1915)『公教會の復活 前編』天主堂, p.241

_____(1928a)『切支丹の復活 前編』日本カトリック刊行会, pp.232-242, pp.328-349

_____(1928b)『切支丹の復活 後編』日本カトリック刊行会, pp.802-803, pp.825-828

海老沢有道他校注(1976)『キリシタン書・排耶書』日本思想大系25, 岩波書店, pp.65-86, p.911

海老沢有道(1991)『どちりなきりしたん』岩波書店, pp.94-97

片岡弥吉他(1972)『日本庶民生活史料集成 18 民間宗教』三一書房, pp.834-835
九州史料刊行会編(1959a)『天草古切支丹資料(一)』, p.48, pp.55-56
_____(1959b)『天草古切支丹資料(三)』, pp.65-80
清水紘一(1985)『キリシタン禁制史』教育社, p.232
純心女子短期大学(1989)『キリシタンの洗礼資料集』, p.10, p.15, p.19, p.21, p.84, p.127
浜崎献作(2003)『天草の伝承キリシタンとオラショ―その変容と消滅 / 石に遺された信仰の証』サンタ・マリア館, p.94, p.362, p.551
古野清人(1973)『古野清人著作集5 キリシタニズムの比較研究』三一書房, p.343
宮崎賢太郎(2008)『カクレキリシタン オラショ ― 魂の通奏低音』長崎新聞社, p.19, p.273
村上直次郎訳・渡辺世祐註(1970a)『耶蘇会士日本通信 上巻』雄松堂書店, pp.221-359
_____(1970b)『耶蘇会士日本通信 下巻』雄松堂書店, pp.214-529
柳田利夫(1978)「キリシタン教会内の非会員日本人-Iその役割と性格について」『史学』第48券, p.56, p.392
C3TV온라인성경 http://bible.c3tv.com/bible/read/read.asp?MenuCd=2(검색일 2014.6.20)

논문투고일 : 2014년 09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4년 09월 20일
1차 수정일 : 2114년 10월 08일
2차 수정일 : 2014년 10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4년 10월 19일

<要旨>

잠복 기리시탄(潛伏キリシタン)의 전승 세례

- 기리시탄 교리(教理)와의 적합성 여부를 중심으로 -

1614년 전국적인 '기리시탄 금교령'이 내려지자 사제들은 잠복 사목 활동을 하다가 추방되거나 순교 당하게 된다. 특히 한 사람의 사제도 없는 상황에서 금교령이 해제될 때까지 신자들 스스로 비밀 조직을 만들어 세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의식(儀式)과 교리, 기도문 등을 세대를 거듭하여 전승해 온 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가리켜 '잠복 기리시탄'이라 하고 그 기간을 잠복시대(1644-1873)라 한다.

본고에서는 기리시탄시대(1549-1644)의 세례가 잠복시대에도 교리에 적합하게 이루어졌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교리서 『도치리나 기리시탄』(1600)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첫째로 세례를 베푸는 자의 자격은 적합한가이다. 신앙 공동체 속에서 세례 담당자를 세워 세례를 전승하여 왔는데, 이는 "사제가 없는 곳이라면 기리시탄 누구라도 베풀 수 있다."는 가르침에 따른 것이다. 둘째로 세례를 받는 자의 자격은 적합한가이다. 공동체가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자연적으로 유아세례가 거의 모두를 차지하며, 아이의 부모가 미즈카타로 불리는 세례 담당자에게 세례 청원을 한 후 대부모를 동반하여 세례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셋째로 세례 집례자의 세례 의식 행위, 즉 선포하는 세례문과 물을 뿌리는 방법이 적합한가이다.

선교사들의 선교에 대한 열심과 기리시탄의 헌신, 탄압에 대비한 일본 상황에 맞는 콘프라리아(confraria)의 조직이나 종교서의 발간 등이 탄압기에도 신앙을 이어오게 하였다. 그러나 사제의 지도 없이 조직 독자적으로 세례를 전승한 결과, 지역별·조직별로 큰 차이가 나며 기리시탄시대의 교리서에 적합한 세례도 있고 적합하지 않은 세례도 발견된다.

A study on the suitability of Secret-Christians' transmitted baptism for Christian doctrine

The edict against Christianity in 1614 caused Secret Padres to be banished or martyred. Especially after the edict, no padres were in Japan. Secret-Christians organized secret communities and transmitted baptism, ceremonies, doctrines, prayers, and so on until the revocation of the edict. This period today is called Secret Period(1644-1873).

This paper explores the catechism *Doctrina Christam*(Christian doctrine, 1600) to find whether the baptism in Secret Period was done according to Christian doctrine. First, the focus is on whether a christener was suitable for the doctrine. The Christener in the communities transmitted baptism, which followed the teaching that baptism can be done by any christians if padres are not in that place. Second, the focus is on whether baptized ones were suitable for the doctrine. The communities consisted of christians, so infant baptism naturally prevailed. After parents' applying for baptism to the christener, Mizkata, infants were baptized, accompanied by a godparent. Third, the focus is on whether the way of christener's baptism was suitable which included proclaiming baptism and spraying water.

Efforts of missionaries, devotion of Christians, organization of Confraria prepared for suppression, and publication of religious books made them have faith in God even in the Suppression Period. However, transmitting baptism on their own without padres made a big difference depending on districts and communities. Some of them are suitable for the catechism of Christian Period while others are not.